

# 불소수지, PTFE 중심 국내시장 성장

국내시장, 산업용 수요 정체에 페인트용 수요 감소 ... 수입량도 축소세

일반적으로 분자 가운데에 불소원자를 함유하고 있는 고분자를 불소수지라고 부른다.

상업화돼 있는 불소수지는 여러 종류에 이르지만 공통적으로 우수한 내열성, 내화학약품성, 전기절연성 외에 비점착성, 저마모성 등의 특성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불소수지는 화학, 전기·전자, 기계공업은 물론 우주개발, 항공기산업, 극저온산업 등 넓은 응용분야를 갖고 있다.

대표적인 불소수지는 PTFE로 가장 특징적이지만 내열성이 극히 우수한 반면 성형성이 좋지 않다. 최근에는 용융성형이 가능한 불소수지의 개발이 두드러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불소수지의 PTFE가 약 7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FEP, ETFE, PVDF, PFA가 비슷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PCTFE는 사용량이 극히 제한적이다.

한편, 설비투자 부담과 기술력 부족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오던 국내 불소수지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입량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운활성, 내열성, 내마모성이 뛰어나 건축배관 및 기계부품으로 사용돼 오던 산업용 수요가 정체 현상을 보였고 전체 불소수지 수요증가를 리드해온 페인트용 불소수지 수요가 건설경기 침체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화학저널 2004/05/14>